

사설

신도회의 사찰운영 참여

승가란 다양한 성향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집합체란 점에서 화합을 중요시했으며 4부대중의 원만한 화합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출가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화상이라 불렀다. 화상이란 화상지상인(和尙之尙人)을 줄인 말로, 대중의 화합을 주도하는 중추라는 의미이다.

특히 대중불교의 승단은 재가와 출가의 구분마저 없애버리고 역동성이나 대중성이 떨어진 부파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승가는 출가와 재가를 종속과 피종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착화시켰다.

이제 시대는 21세기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승단은 아직도 구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최근들의 승단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변화의 움직임

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6월 25일 대구 동화사는 '말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교구신도회 관계자, 산하 신행단체 임원 등 4백여명'을 초청, 4년간의 교구 정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시대상황에 맞는 교구운영에 박수를 보낸다. 원래 94년 개혁종단 이후 '신도회 간부들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를 제정한 바 있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신도회야말로 사찰 구성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사찰운영 전반에 대한 그들의 참여와 감사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제는 모든 교구본사들도 신도회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신도들을 사찰 외호의 '시주자'로만 여기는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미래지향의 열린 사찰로

불교계는 최대자산인 사찰 운영 방식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 공간, 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 현실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법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불교의 전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사찰이 미래 사회에 제대로 존재하기 위한, 사찰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고 시민들의 여가 활용에 대한 모색이 다각화되는 추세다. 사찰이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타종교와 여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위락 시설 등에 쏠리게 되어, 사찰은 차츰 고사상태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출가스님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찰의 기본적 기능은

여법하게 지탱해나가는 일조차 벅차게 될 것이다. 다양한 모색 없이 그런 기본적 기능만을 하는 사찰로는 다양한 사회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가 신도들과의 협력 속에서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언제나 지역 사회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찰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선 스님들이 사찰 운영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수행도량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며, 포교사찰에서도 스님들만의 영역을 확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전문가에 맡기고 재가자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찰의 성격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찰의 성격을 바꿔 나가는 것에 불교의 밝은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회당대중사 탄생100돌사업 차질

진각종 총본산건립 지연 각종 기념사업에 영향

변화의지 뒷받침할 행정시스템 필요

진각종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진각종이 종단 체계 및 구조 준비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종단 혁신 작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각종은 지난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행정체 확립 및 진각

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한 40여 개의 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100주년기념사업회까지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올 6월까지 실시기로 예정됐던 9개 사업 가운데 '인간 4사 운동'과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선포식' 등 5개 사업만이 진행됐을 뿐, '포교백서 발간' 및 '서원가 아카데미 설립' 등의 사업은

뒤로 연기됐다. 또한 진각대학원 대학교 설립, 납골당 건립, 평양 컴퓨터 교습소 개설 등 올해 착수해 연차적으로 진행기로 한 '계속사업'들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100주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5월로 예정됐던 총본산 건립이 늦어지면서 이와 맞물린 기념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화(승)직과 전문(종무행정)직으로 나누

는 체제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포함해 총무부 포교부 등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그 단적인 예로, 불과 세 달 전 의제를 바꿨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종단 홈페이지는 몇 달째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0주년 기념사업과는 무관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는 종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종단 밖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본질이 종단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변화의지를 뒷받침할만한 안목과 행정시스템이 결여돼 있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수의 종단간부만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실무자들조차도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폐쇄적 종무구조도 '함'을 떨어뜨리는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진각종 문사부장 무외정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일부 사업의 일정이 조정됐을 뿐이다. 다만 변화에 따른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mwu@buddhapa.com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종교인들은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외치며 11일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여성 종교인·노동자들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조계사서, 경찰청장 공식사과 등 요구 행진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종교인들과 한국시그네틱스 여성 노조 원동 500여명은 11일 조계사에서 '여성인권회복과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혜조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은 대표 인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팔호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서명 △경찰의 직권남용과 위법성이 드러난 해당 경찰관의 민, 형사적인 책임 및 즉각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청 내부훈령 개정 등 공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회는 LG 건설 측의 비구니 스님 폭행을 경찰이 방관한 것과,

파업 중이던 한국시그네틱 여성노동자들에게 대한 알몸수색,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촉구 집회 중이던 두 수녀의 감금 등 공권력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열린 것이다. 남동우 기자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조계종 16교구 고운사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조)는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고운사 대웅보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고운사 주지선거에는 혜승스님(의정부포교원 주지)이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054 833-2324. 김원우 기자

"남북불교 동질성회복 등 성과

민추본 창립2돌, 화해·협력으로 북한변화 유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린)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통일강연회가 지하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양신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민추본은 지난 2년간 불교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수립, 남북불교교류, 북한동포돕기 지원, 북한 사찰에 대한 조사 연구, 남북공동 행사 참가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미진하나나 민족

의 화합과 통일,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소중한 성과를 쌓아왔다"며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단단히 다지고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여 '나가지'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기념 통일강연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단단한 조국을 화합과 평화의 통일정도로 만들기 위해 애쓴 정린스님 이하 민추본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 magazine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reading and a list of subscription information.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케보받습니다

Advertisement for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office and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ngsan Hanseok Donggigwa' (풍산한식동기과)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text announcing a price reduction from 540,000 to 420,000 won.